

표준논단

희망직업



정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031-610-8110

대학을 진학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생계적인 독립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학 졸업이므로 대학졸업 후 본인의 취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므로 대학을 다니면서 최대의 관심은 졸업 후의 본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경기의 불안정과 과도한 인력 공급으로 인하여 해마다 실업문제가 사회적 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다. IMF 이후로 명퇴, 이태백 등 신종용어가 직업과 관련하여 속출하고 있으며 너무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실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인기 있는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해마다 학과 조정을 하면서 입시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 경쟁률을 고려하여 학과 조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만 하여도 순수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등이 인기가 있었으

나 한동안은 순수학문보다는 응용학문을 공부해야 취업이 잘된다는 생각에 순수학문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일부 대학에서는 순수학문에 대한 학과를 다른 학과로 전환하여 임시정책을 내세우게 되었다.

현재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하여 40대, 50대 연령층에서 대학의 학과를 검색하다 보면 예전에는 전혀 접할 수 없는 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한 예로 한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인의 상담을 통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학과가 학교마다 신설되었고,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직업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다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부동산 서비스를 담당하던 사람들은 미인기 직종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대학의 부동산 학과도 계속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현재 주택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은 부동산 중개를 담당하던 직업이 미인기 직종으로 변해 버렸

나. 그러나 지금도 4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직종을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최고의 권위를 사랑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0대와 20대의 경우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의 인생 모두를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직업보다는 적당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본인을 위한 투자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 해마다 지도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취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경제적인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과거나 현재 모두 같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로 자신의 삶을 위한 직업보다는 가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직업을 선호하였으나 현재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직업을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차이로 보여진다.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에 따라서 직장에 대한 생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가마다 선호하는 직업에 차이가 있고, 과거와 현재에는 직업의 선호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는 관공서에 취업하여 안정된 직장을 가지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가장 쉬운 예로 1998년 IMF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최고의 선망 직업으로 선정하였다. IT 산업이 갑작스럽게 부흥되던 때에는 많은 학생들은 IT 관련 학과에 입학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서둘러 IT 학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IT 인력 공급으로 다소 IT 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나

타나면서 초봉이 가장 높은 직업 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과 관련있는 학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취업을 고려한 학과 신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매년 변화가는 추세에 따라서 학과 신설을 하나 보니 다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항상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의 취업 지도를 위해서 나도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인기직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신문 기사를 모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기직종에 대한 설계를 하여본다. 경기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학생들의 취업을 고려하다보면 자주 변화가 일어나기에 미리 변화를 예측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시대이다 보니 예측을 통한 취업지도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올해도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한 조사를 하나 보니 꽃을 이용하여 장식을 담당하는 플로리스트, 여행 계획을 담당하여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오피레이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골프장 캐디 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인기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져 있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과거에 인기 있던 연예인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다 보면 과거에 집안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연예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연기 지도 학교를 보내고 있으며, 장래 희망에다가 가수나 방송인이 되겠다고 뚝뚝하게 밝히고 있다.

몇 일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7급 공무원이란 영화에 힘입어 이번 7급 공무원 시험에 최고의 응시율을 보여서 공무원 인기가 최고에 달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물론 과거부터 공무원에 대한 선호사상은 상당히 높았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장 안전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직종이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학교와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라고 한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항상 생활속에 봉사정신이 익숙하도록 지도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일본에서 10대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좋은 인기직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가수였으며, 두 번째는 유약관련 직종이라고 되어 있었다. 한국도 요즘 10대와 20대 들에게 가장 우상처럼 떠오르고 있는 방송인이라는 직업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기 직종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선호 사상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아서인지, 일단은 전문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과거에는 미용사, 여행사, 오퍼레이터,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등에 대한 직업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직업도 정확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으로 보여진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현상에 맞추어서 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너무도 많은 변화를 준 여러 가지 상황은 앞으로 더 빠르게 우리생활 속에서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나만이 과거의 시대를 동경하고 그리워한다고 해서 현재의 문화를 거부하고 살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나의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가지게 되는 직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직업에는 다소 변화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서 사회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 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갖게 된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사회에 진출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 중 ROSA라는 여자는 식품마트의 시식코너에서 일하고 있으며 ROSA의 남편은 앞으로 투병중에 있었다. 생활을 위해서 본인은 일주일에 6일을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으나 ROSA의 입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날을 보기 힘들었으며, 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얘기를 하였다. 마트에서 시식코너를 담당하여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본인의 환경은 누가 보아도 좋은 조건이 아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는 행복은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좋은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ROSA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즐겁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즐겁다고 말하였다.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좋은 조건의 직업을 충분히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도 즐겁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만 마트에서 만난 ROSA 처럼 모든 것을 나의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중심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시간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직장에서의 생활

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 보다는 내가 가진 직업에 최고의 만족을 가지면서 한달의 수고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수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행동은 우리 생활 전반을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적으로 다소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량 속에서 최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인기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는 변화하기에 변화속에 나 자신이 따라가기 보다는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긍정적인 사고로 나 자신을 개발 할 수 있으며 나의 마음에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까 생각한다.

| 기술표준 2009. 7